천주교의정부교구
DIOCESE OF UIJEONGBU

“그리스도를 향한 남매 순교자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깃들다...”

김치호 베네딕토 신부와
김정숙 마리안나 수녀
(베네딕도회 덕원수도원,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의정부교구 순교자공경위원회

분단의 상징이 된 파주

**분단의 땅 파주

통일대교, 임진강 철교, 임진강 평화누리공원, 녹슨 옛 철책, 생태탐방로, 율곡습지,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 **캠프 그리브스(Camp Greaves)**

- **파주 건너편 : 반토막 난 장단군**

이남(장단면·군내면·진동면·장남면·진서면 일부 등 → 연천군 장남면만,파주시)

이북(강상면·대남면·소남면→개성)

**남매 순교자로 또 다른 분단 상징, 파주 갈곡리성당

순교자기념순례지 2018

1950년 10월, 12일의 시차, 안악과 평양에서 피를 흘린 두 순교자

-'하느님의 종' **김정숙(마리안나**, 1903~1950,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하느님의 종' **김치호(베네딕토**, 1914~1950, 성 베네딕도회 덕원수도원)

• **방도(Bandeau)와 세뜨(sète)와 꾸와페(coiffer)**

방도와 세뜨로 머리를 둘러싸매고, 머리 좌우에 꾸와페를 내려뜨려 눈을 침묵하게 하고 잠심潛心에 이르게 도움을 줬다.

갈곡리공동체는 어디에서 왔나?

**갈곡리 신앙의 전래

- 생활권역

양주·의정부·동두천·포천·고양·파주권역

- **1892년 강원도 홍천, 횡성→우골**(양주군 광석면 삼패리, 사패리, 양주광적면 우고리)

- **1896년 우골**

김근배 바오로, 김연배 프란치스코, 박만보 베드로 등 세 가족 → 파주군 천현외패면 갈번동, 은곡동(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 **1898년**

칠울(갈곡리)공소 설립

갈곡리 공소,
그리고 준본당, 본당

**갈곡리 신앙공동체가 걸어온 길

- 1898년 칠울공소 설립이후

  올해로 설립 128년째 맞는 신앙공동체...옹기그릇 만들어 팔며 생계유지.

- 1910년 한때 신자수 246명...

  이제는 20여 가구 50여 명이 전부.. But 본당 승격(2025년 2월 26일자)

"옆집이 굶으면 자신이 먹을 게 없어도 나눴다."

(황규서 시몬씨, 교우촌전통)

- 1933년 공소 강당 건립.. 조부 황인선(베드로)씨 회장(옹기장이)
- 1950년 6·25전쟁 당시 공소 강당 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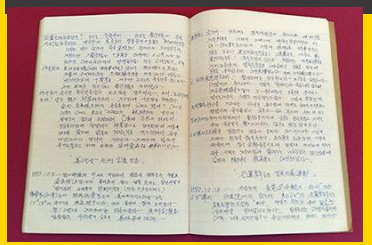
  1951년 당시 목수였던 황용하(요한, 황규서씨 조부) 공소회장

  공소 강당 재건(현 사제관과 칠울카페? 공간)
- 1955년 군부대, 군종신부 김창석(타대오) 신부

  미 해병 군종 에드워드 신부 도움으로 현재의 갈곡리성당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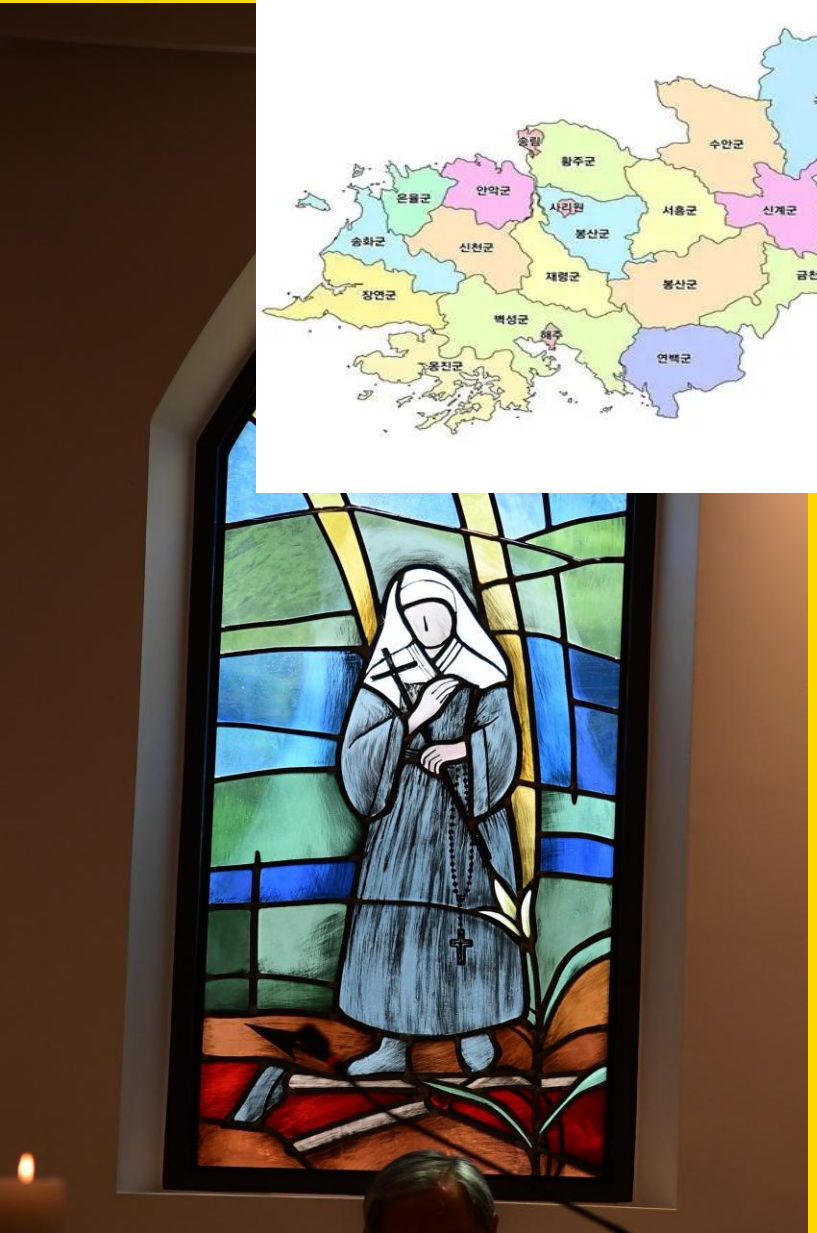
김정숙 마리안나 수녀...

김정자 안젤라 수녀는 반듯이 누워 자는 모습이었어요.
머리를 짚어 보니, 영혼이 몸을 떠난 지 이미 8시간 지난 터라
차기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신음하는 김정숙 마리안나 수녀를 보니,
너무 참혹하여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팔은 꺾여서 옆에 내팽개쳐지듯 놓였고, 뺨은 낫에 베였으며,
이마는 도끼에 맞아 불쑥 솟아올랐고, 코는 삼각 창에 찍혀 숨 쉴 때마다
검붉은 피가 솟았다 빠졌다하며 뺨으로 흘러내려 엉켜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 수녀는 10월 17일 저녁 6시 10분 께부터
숨소리도 작아지고 코에서 피 대신 물이 흘러나오더니
이내 그마저 멈추고 운명하였습니다....



증언 강양자 마리레지스 수녀(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김정숙 수녀가 걸어간 길...



**김정숙 마리안나 수녀 가족

- 1903년 10월 18일, 4남 3녀 중 둘째. 유아세례, 율리안나, 수도명 마리안나.
  7남매 중 맏이와 막내 제외하고, 모두 수도자가 되려 했으나 둘 만 성소 이뤄
  (건강,식량난 때문...)

- 옹기로 생계 잇다가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칠울 떠나
  → 직계인 김원영 신부 부임한 갓등이, 왕림성당 사제관 일을 하며 살아,
  가족은 아현동으로

** 김정숙 마리안나 수녀

- 1921년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입회 (1928년 첫서원, 1934년 종신서원)
- 안악 매화동 본당에서 교육사도직(1926.09~1950.10.17) 24년간 투신
  해방 후 5년 수난기, 1948년 9월 24일 봉삼학교와 유치원에서 모두 추방,
  토지개혁 몰수. 김정자(안젤라)수녀는 월남하려고 재령까지 갔다가 포기
  걷지도 말도 못하게 돼, 김정숙 수녀, 강양자(마리레지스) 수녀 몫의 일,
  퇴비까지 해. 1950년 7월 17일 매화동 주임 이여구(마티아) 신부 피랍
- 1950.10.15 좌익, 총과 칼, 낫, 도끼로 신자 50~60여 명과 수녀 2명 살해
  (강양자 수녀만 구사일생)

김치호 베네딕토 신부는...

"1949년, 5월 11일, 당시 결핵을 심하게 앓으면서
폐가 한쪽밖에 남지 않았던 김치호 신부는
자신의 수도원 숙소에 누워있다가 끌려가
8㎡(2.42평) 크기의 습기 찬 비좁은 감방에 동료 18명과 함께 갇혀
거의 숨도 쉬지 못하며 지내야 했다.
18명이서 줄을 맞춰 쪼그리고 잇어야 했고,
칼잠을 자다가도 누군가 몸을 돌리면 수감자 전원이 잠을 깼다.
감방 구석 용변용 구멍 위에도 천을 덮은 채 그 위에서 잠을 자야 했다.
14개월간 이런 참혹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1950년 10월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하면서
평양 인민교화소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인민군들은 그를 다른 수도자들과 함께 후송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각목으로 때려 죽였다."

- <덕원의 순교자들> 중에서 -

김치호 신부가 걸어간 길...

**김치호 베네딕토 신부가 걸어간 삶의 길, 그 발걸음

-1914년 3월 31일(김정숙 수녀보다 11살 아래), 4남3녀 중 넷째

유아세례, 아우구스티노, 수도명 베네딕토.

-옹기로 생계 잇다가 어려서 부모님과 함께 칠울 떠나

**김치호 신부

- 1926년 성 베네딕도회 덕원수도원 입회(도제로 들어가)
- 1938년 법정수련 들어가(수도명 베네딕토, 1939년 첫서원)
- 1942년 5월 1일 사제수품(덕원수도원 첫 한국인 수사신부)

*첫 한국인성직수사는 김봉식(1913~1950)신부, 최영호(1908~1998)수사신부
(성 베네딕도회 연길성십자가수도원 출신)

- 1942.06 덕원본당 보좌, 1944. 덕원수도원 수련장 보좌, 1945. 덕원본당 주임
- 1946.01 결핵으로 쓰러져...요양
- 1946년 '북조선토지개혁령'으로 덕원수도원 435ha 중 5ha 남기고 몰수,

1946.8 국유화령, 1947.12. 화폐개혁으로 경제적 어려움 부닥쳐

- 1949.05.11 체포.. 14개월간 투옥생활.. 1950.10.5 순교..

갈곡리성당 건축은... 연도는...

** 오늘의 갈곡리성당은...

- 경기도 시도등록문화유산(2021년 10월) 지정
- 총면적 60평, 화강암에 석축을 쌓듯 조적한 벽체, 목조 트러스와 볼트 트러스 절충 지붕, 전면 중앙부 종탑으로 구성된 단순한 석조성당.
- 화강암석재는 덕정리(현 양주시 회천1동) 주둔 미 14공병대가 발파작업으로 캐내어 갈곡리로 옮겨... *1953년 8월 봉헌 의정부성당 카피*
- 성당 내부 제단은 5각형의 반원형 제단(Apse)
- 공간 구획 기둥 있었지만, 지붕하중을 견디지 못해 지붕과 천장을 철골로 보강하면서 없애.

◆연도

무형의 신앙유산으로 '한국 천주교회 상장례에 불리는 노래 연도'

1980년대 후반, 갈곡리 출신 김득수(가롤로, 1931~) 회장 복원..

평화방송에 어르신들 모시고 가 녹음...

이를 악보로 만들고 각 지방 연도가락 채록해 표준화된 악보 만들어...

<성교예규>(1991), <상장예식>(현)